

고향의 순수성,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믿음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기린미술관서 '홍순무 화백 개인전'

홍순무 화백이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 가는 여름을 시원하게 장식한다. 작년 여름에 기린미술관에서 25회 개인전인 홍순무 화백의 고향의 순수성을 그려온 화가, 홍순무 전을 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기린미술관을 찾았다.

올해 미수인 홍 화백은 병원을 가는 일 외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화실에 출근하면서 이곳에서 죽으면 여한이 없다고 한 진정한 예술가이다. 홍 화백은 1935년에 생을 시작했고 어렸을 때 농촌 마을의 풍경과 농악의 정취를 알게 한 마음의 고향인 고창에서 자랐다.

이번 전시되는 작품들은 34점인데 2020년 이후에 제작한 작품이 11점이다. 장르는 농촌풍경화 17점, 인물화 7점, 풍경화 7점, 정물화 3점과 같이 대체로 4가지이다.

농촌풍경화는 자연과 인물이 혼합되어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을 성숙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중 농악은 홍순무 화백만의 독특한 흥이 배어 있는데 농촌의 축제를 통해 흥이 절로 나서 여개가 들쭉거리며 열씨구가 입에서 무의식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그림들을 잘도 표현하고 있다. 인물화는 뱃생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초가 탄탄하여 성화 좌상이나 누드 등으로 발전되어 교과서적인 인물화 기법으로 발전되고 있다. 인물화중 성화는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의 자연스런 발로를 표현해 주고 있다.

홍 화백이 미술대학을 가게 된 것은 그 당시 중앙고교 교사였던 현재 만102세인 김형석 연대 명예교수님이 "순무는 미래를 가라"



홍순무작 '귀로'

는 조연 덕분이었다고 한다.

홍 화백은 한국 전쟁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미술대학에 진학하여 현대적인 의미의 정규교육을 받은 광복 1세대를 대표하는 고향을 지키는 화가이다. 서구 현대 미술 조류의 범람 속에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시각 예술 언어를 확실히 지켜 왔다는 평이다.

또한 그는 현대 추상, 전위 등의 화려한 옷으로 주위 사람들이 비웃음을 때 고향 산천과 이웃 사람들을 그렸다. 그리고 보아서 알고 싶어서 느끼는 삶의 진실만을 그렸다. 홍 화백의 삶의 현장의 이미지를 그리고 색채들이야말로 진정한 리얼리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홍순무작 '붉은 산'

그동안 홍 화백의 작품 활동의 역사를 유근준 전 서울대 미대 교수는 제1기(1954-79)는 모색기, 제2기(1980-1989)인 전개기, 제3기(1990-1999)는 정착기, 그리고 제4기(2000년 이후)는 완성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한 평생을 그림만 그려온 홍순무 화백의 그림은 조형 요소와 미의 원리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이자 천착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교과서적이다. 한 평생을 그림의 원리에 천착해온 그에게 누가 보더라도 친근하면서도 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그만의 필법이 있다(최정화2012).

생애에 걸쳐 40년간의 교육자로서 그리고 70년간의 작가로서 자유롭고 아름답고 성숙하게 생애를 그림같이 산 홍순무 화백의 열정 어린 작품을 선보이게 된 것은 연세를 생각하면 그렇게 쉽지 않은 기회이다.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한 건강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물감과 열정으로 구상화의 진수를

추구한 홍화백의 결정체를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화백은 이번 전시를 통해 참다운 자기 예술의 세계 소재들을 신들린 생동감 구성의 긴장감을 뛰어넘는 공간의 웅만감 신명난 한국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색채의 역동감 그리고 이 모든 시각예술의 표현력에 목표를 주고 개성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작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믿음, 그리고 변함없는 감사의 마음이 한데 어울려 이룩한 참다운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홍 화백은 '신앙 믿음과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세계를 탐구하는 자세로 그림을 그렸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삶의 진실을 다해 그렸다.'고 이번 전시회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홍순무의 예술은 일상 그가 체험하면서 살아온 생활 주변의 물상들을 보고 느끼면서 회화로 재창조해 온 것이다. 그의 작품이 순수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도 꾸밈과 과장을 모르는 작화 태도 때문이며 그는 삶의 진실을 예술의 힘을 빌어 표현해 온 것이다.

홍순무 화백은 전주고등학교에서 5년간 봉직하다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35년간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동안 개인전 25회를 개최하였고, 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한국미술, 전북도립미술관 초대작가를 역임하였다. 목정문화상이나 국전 등에서 심사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정라북도 예술인 공로상(1984), 전라북도 문화상(1985), 목정문화상(1997), 대통령 황조근정훈장(2000), 고창예술인상(2007), 가톨릭미술상 특별상(2012) 등 다양한 상을 받으신 모름지기 고창뿐 만아니라 전라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예술가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년한지관, 생활한지 예술 실험실 참가자 모집

11월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전주천년한지관은 오는 11월까지 생활한지예술 실험실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활한지예술 실험실은 실생활에서 이뤄지는 창작·제작활동에 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한지의 일상적인 쓰임을 확장하고자 마련한 시민형 프로그램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한지로 밝힌 밤, △공예 품은 우리종이, △소조와 한지조형, △한지 인형으로 동화책 만들기, △한지가 형태가 될 때, △작가가 꿈꾸는 한지, △우린 흑석골에 산다 등 총 7개로 구성돼 있다.

한지와 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선태 원장은 "생활한지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전통한지의 다양한 쓰임의 가치를 전하고 한지로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천년한지관 홈페이지(www.jn1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완주풍류학교 상반기 상설

'우리가락 한판공연' 성료

완주풍류학교 상반기 상설공연 '우리가락 한판공연'이 성료됐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상설공연은 지난 6월 시작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총 7회에 걸쳐 열렸다.

우리가락 한판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연령 제한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특히 최석근 단장을 중심으로 완주풍류공연단이 진행하는 공연은 전통음악부터 창작음악 및 한국무용과 창작무용을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약 2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하반기 상설공연 '우리가락 한판공연'은 9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풍류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완주풍류학교 소식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풍류학교 홈페이지(http://www.wjpun.gov.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회원가입을 할 경우 완주풍류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미리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정체성 존중 · 가치 인식으로 서로를 성찰하다

도립미술관 서울관서 '김정희 개인전' ... 오늘부터 22일까지 '실낙원' 주제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17~22일 6일간 서울관 인사아트센터 6층에서 김정희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19번째 개인전이다.

작가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는 '실낙원'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얼마 전 배우자를 잃은 작가의 심리적 고통을 실낙원 속 아담과 이브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작품 속 낙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상징적 공간이지만 아담의 상실을 통해 곧 고통의 근원지가 된다. 작가가 말하는 Y는 바로 작가의 남편으로 Y와 함께한 풍경은 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낙원이자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실낙원의 정원이자.

특히 작품에 등장하는 달과 Y와 함께한 두 개의 달은 정체성을 상징하며, 각자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서로를 성찰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자연의 상징물로서 강렬한 붉은 색의 맨드라미와 짙은 녹색의 식물들을 배경으로 배치하고 그 가운데 인체의 형상을 연결해 배열한다. 등장인물들은 작가의 감성적 결과물이자 세계를 바라보는 통로인 동시에 자아정체성을 나타낸다.

'실낙원'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탄생과 죽음의 철학적 원리를 자



아정체성의 근원으로서 표상한다. 작품을 통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미술 제

현해내기보다도 생명체가 탄생하고 죽는 모습 앞에서 감히 확신하기 어려운 삶 너머의 세계를 보고자 한다.

작가에게 죽음이란 사적인 경험으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지만 자연의 순리이며 결국 자신 역시 죽음을 향한 존재임을 인지하게 된다. 작품에서 전개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석하고, 탄생과 죽음의 이분법 사이에 가로놓인 인간의 존재에 의미를 사유해보고자 한다.

한편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2019 안테광당 미술대전 우수상(갤러리 피카디리), 목우공모미술대전 특선 3회, 입선 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2회 등의 수상 경력이 있다. 현재는 신작전 재무 홍보, 목우회원, 안테광당회원, 종로미협 회원, 영등포미협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